

홍진영 “트로트 전성기, ‘뿌듯’...이런 날을 줄 알았어요”

새 싱글 ‘안돼요’(Never Ever), ‘트로트 발라드’ 표방 작곡 가수 황치열·작사 갯메리 C...절친으로 유명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트로트는 어린이날 행사 때 유치원에서 부를 수 있을 만큼, 모든 대중을 아우르는 장르이거든요. 이런 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신다고 하니 뿌듯해요.”

‘미스 트롯’ 이전에 홍진영(35)이 있었다.

이마지, 나훈아·남진, 주현미, 트로트 4대 천왕으로 이어져다 1990년대 들어 기근 현상을 보이던 트로트의 명맥을 이어온 몇 안 되는 가수다.

최근 논현동 카페에서 만난 홍진영은 최근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으로 촉발된 트로트 붐에 대해 있었다. “이 붐이 오래 갔으면 해요. 트로트에는 다양한 매력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흥도 있으니까요.”

내친김에 홍진영은 트로트 장르 사냥꾼으로 나섰다.

지난 4월 탕고 트로트 ‘사랑은 꽃잎처럼’을 발표했다. 2일 오후 6시에 공개한 새 싱글 ‘안돼요’(Never Ever)는 ‘트로트 발라드’를 표방한다.

홍진영은 ‘트롯’로 압축해서 부르는 이 곡에 대해 “연인이 떠나간 후 이 세상에 나 홀로 남은 여자의 심정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냈다”고 소개했다.

작곡은 가수 황치열, 작사는 갯메리

C가 했다. 두 사람은 발라드,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절친한 사이다.

트롯 ‘안돼요’는 두 사람의 호흡과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곡이다.

“매번 새로운 도전이 재미있어요. 노래를 부를 때도, 장법에 변화를 주려고 하죠. 발라드를 접목하다 보니, 녹음을 할 때 황치열 씨가 비브라토(목소리를 떨리게 하는 기교로 트로트에서 자주 사용됨)를 최대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하.”

홍진영의 도전은 가장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안돼요’의 작사가 갯메리 C는 홍진영의 작사가 부케리터다.

개그맨 김영철의 트로트곡 ‘따르릉’도 홍진영이 작사했다.

‘팔방미인’ 홍진영은 기획사 CEO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분쟁을 격기도 한 홍진영은 이후 1인 기획사를 차렸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제 의견을 반영된다는 건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회사 운영이 힘들었다. 평소 출연하던 행사는 100분1가량으로 확 줄어들었다.

평소 시간을 소분해 쓰며 바쁘게 지내는 홍진영은 대신 각종 사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작자 홍진영’의 모습도 예고했다. “트로트 가수는 무엇보다 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래는 기본이고요. 관객들을 한번에 아우를 수 있는 매너가 있어야죠.”

사실 홍진영은 여우곡절을 많이 겪었다. 처음에 대학로의 연극에 발을 들여놓았다.

약 1년간 무대에 오르다 원래 꿈이던 가수를 위해 2007년 여성그룹 ‘스완’ 멤버로 데뷔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팀은 와해됐다.

이후 2008년 직장인의 실수담을 코트화한 KBS 2TV ‘사이다’의 한 코너 ‘안나의 실수’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09년 트로트가수로 전향해 발표한 ‘사랑의 밧데리’가 대박이 나면서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처음 트로트를 시작했을 때는 쉽지 않았다. “외톨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도 속하기 힘든 느낌이었다”고 돌아봤다. 트로트계에서는 아이돌 취급을 당했고, 그렇다고 트로트로 전향했으니 아이돌 영역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결국 두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대

중적 가수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노력하면 언젠가 인정 받는 날이 오겠지라는 것이 제 첫 번째 계획이었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 (트로트계) 선배님들도 인정해주시더라고요.”

차지지 않는 텐션으로도 유명한 홍진영은 그 비결로 계획을 짰다. “계획 안에 계획이 있고 그걸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지금까지는 다 이뤄졌어요. 마흔살이 되기 전에는 신인을 문정하고 싶어요.”

지난 추석 연휴 TV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를 달군 나훈아를 보고 ‘정말 레전드죠. 닳고 싶은 분’이라면서 “저 역시 오래 오래 나이가 먹어도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나훈아가 사랑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 노래 실력, 작곡·작사 실력은 빼놓을 수 없다.

홍진영은 기 때문에 노래 실력이 평가절하되긴 했지만, 장르불문하고 또래 가수 중 내로라하는 가장을 자랑한다.

“저 음역대가 넓고, 음도 높게 잘 올라가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많이 하다보니 대중이 음악적으로 체감하실 기회가 적죠. 봄, 가을로 나눠 계속 신곡을 발표할 예정인데 2년 뒤에는 정규 앨범도 내고 싶어요.”

홍진영 소속사 이름인 ‘IMH’는 ‘아임 홍진영’을 뜻한다. ‘홍진영 답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 “우레하고 당당하며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 호호.”



김영철, 박지선과 마지막 문자...“빨리 낫고 보자고 했는데”

‘철파엠’서 오프닝 멘트로 故 박지선 추모



‘철파엠’ 김영철이 故(故) 박지선을 언급하며 추모 불결에 동참했다. 3일 오전 방송된 SBS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이하 ‘철파엠’)에서 DJ 김영철은 “주변 사람을 더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라며 오프닝 멘트로 고인이 된 박지선을 언급했다.

김영철은 “믿기지 않는다.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라며 “사람을 웃게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였다”고 했다.

이어 “어제 기사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었다. 어제는 정신이 없었다”라며 “빈소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방송이 끝나고 찾아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취자들의 추모 메시지를 읽던 김영철은 결국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오늘은 참 쉽지 않은 날이다. 많은 개그맨 선배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다. 청취자분들도 박지선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며 울먹였다.

또한 김영철은 박지선과의 마지막 문자를 떠올리며 “박성광 결혼식 때 지선이를 봤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문자를 보냈다. 그때 답장으로 지선이에 게 ‘제가 아프다. 빨리 낫겠냐’고 왔고, 저는 ‘빨리 낫고 또 보자’고 보냈다”고 회상했다.

끝으로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영원한 최고의 후배다. 지선아 고맙고 사랑해”라며 고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박지선은 2일 모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선의 모친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됐으나, 경찰은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선은 평소 지병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이에 박지선의 모친이 서울에 올라와 함께 생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라디오차트 9위...K팝 신기록

지난 주보다 2계단 ‘썸’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연일 K팝 신기록을 쓰고 있다.

3일 빌보드 등 외신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오는 7일 자 빌보드 ‘팝 송스(Pop Songs)’ 라디오 차트에서 9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11위보다 2계단 뛰어올랐다.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라디오 차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기존에 방탄소년단이 ‘팝 송스’ 라디오차트에서 세운 최고기록은 지난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22위였다.

특히 ‘다이너마이트’로 해당 차트

K팝 가수 최고 기록을 썼다.

지금까지 이 차트 K팝 최고 기록은 싸이가 지난 2012년 ‘강남스타일’로 세운 10위였다.

빌보드의 여러 라디오 차트 중 하나인 팝송차트는 약 160개의 주요 라디오 방송국의 주간 방송 횟수를 집계해 매긴다.

빌보드 메인싱글 차트 ‘핫100’ 점수에서도 라디오 방송횟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전역이 중요한 이유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지역신문이 강세다.

지역에서 공연을 해야 그 지역의 신문이 보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방송횟수로 이어진다.

현지 대중이 풀뿌리처럼 넓게 퍼져 있어야 해당 곡의 인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2년 사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미국 팝 밴드 ‘마룬 파이브’의 ‘원 모어 나이트’에 밀려 7주 연속 2위를 했을 때, 가장 뒤진 점수는 라디오 방송횟수였다.

‘다이너마이트’가 ‘핫 100’에 1위로 데뷔, 최상위권에서 장기점권이 가능한 이유도 라디오 방송횟수에 힘입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심상치 않은 이번 ‘다이너마이트’의 라디오 차트 상승세는 이 곡의 풀뿌리 대중성을 증명한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 미국 대중이 평소 편안하게 즐겨 듣는 디스크라는 장르도 현지인에게 덜 부담이다.

지난 8월29일에서 30위로 데뷔한 뒤 순위가 차곡차곡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송강호·이병헌·전도연 ‘비상선언’ “5개월간 촬영 마무리”

항공 재난 영화 역대급 캐스팅에 관심...한재림 감독 신작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주연의 항공 재난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비상선언’이 5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촬영을 마무리 지었다. 3일 배급사 쇼박스에서 따르면 ‘비상

선언’은 지난달 24일 크랭크업했다.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재난상황에 직면해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리얼리티 항공 재난 영화다.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할 국내 최초 항공 재난 영화이자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 등 역대급 캐스팅으로 관심을 받았다.

현장을 이끌어 온 한재림 감독은 “전 세계적 어려움에 겪는 상황 속에서 큰 프로젝트의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86회차의 실질적인 촬영 기간 등 미리 계획된 여건 하에서 문제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배우들의 집중력과 최고의 스태프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함 덕분”이라며 “후반 작업을 잘 준비하여 좋은 영화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항공 재난 뒤를 쫓는 형사로 변신한 송강호는 “어려운 환경 속에 모두가 안전하게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특히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웃,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이 벅찬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닉쿤, 할리우드 영화 ‘홍콩 러브 스토리’ 주인공 발탁

실화 바탕 로맨틱 코미디...내달 제작

그룹 2PM 멤버 닉쿤이 할리우드 영화 ‘홍콩 러브 스토리’(Hong Kong Love Story)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3일 밝혔다.

‘홍콩 러브 스토리’는 키오니 왁스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로맨틱 코미

디 극으로, 닉쿤은 영화 ‘빅쇼트’, 넷플릭스 드라마 ‘일터드 카본’ 등에 출연한 배우 바이런 만 등과 호흡을 맞추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바이런 만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미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다. 극 중 부유한 가문의 자제로 변신한 닉쿤은 바이런 만과 함께 홍콩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찾아가는

폴란드의 라이징 스타 도미니카가들의 상대역으로 등장해 이들의 우정을 시험하게 된다.

뉴스